

치 사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이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듯 만물을 생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인연을 전하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26회 정기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1999년에 창단되어 평화와 행복을 감동으로 전하겠다는 한결같은 서원이 담긴 소중한 단체입니다. 올해 봉축표어인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의 뜻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감동을 나뉘온 이러한 모습은 한국 불교음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연꽃의 은은한 향기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이, 불교음악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나아가 포교와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26회 정기연주회는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가곡과 찬불가, 범패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로 어느 때보다 더욱 다채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공연의 인연으로 많은 불자와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탄생하고 이러한 음악들이 여울을 만들어 자비의 큰 바다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신심이 돈독한 모든 솔리스트와 사찰의 연합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음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0년 4월 17일

제26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